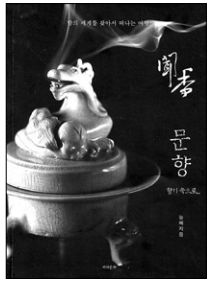


좋은 향은 인간 신체를 水昇火降시켜

수 승 화 강



문향, 향기속으로
능혜 스님 지음
차와문화 펴냄
1만9천원

“향기로운 곳에서는 함부로 열지 말고, 밤새 속에서는 억지로 막지 말라/향초의 부처도 되지 않겠거늘 하물며 승강 책의 나라가 되겠느냐/술에는 푸른 차를 달이고, 향로에는 안식을 사른다/돌! 돌! 돌! 어디까지 선지식을 찾을까.

향을 애용했던 혜감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에서 내려오는 전통향방을 전수받아 한국전통향이 취운향담을 이끄는 능혜 스님이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제목은 《문향, 향기속으로》이다. 책속에는 향의 문화사를 비롯해 한국향·일본향의 역사, 침향의 모든 것, 다양한 향 종류와 사용법, 향 도구 등 그가 20여년간 연구한 향 이야기와 차곡차곡 적혀져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향의 시원을 일제강점기로 보고 있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중국 다량 향료 공장서 만든 인공향료가 들어왔지만 서구문화가 확산되며 향 피우는 걸 터부시하면서 우리 전통의 천연향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전통향의 수준은 최고였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바로 부여 절터서 발견된 백제대향로(국보 287호)가 그 증거라고 밝힌다. 그래서 그 맥이 그동안 끊긴 걸 복원해 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책을 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향수를 비롯해 다양한 향을 즐기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위적이고 조악한 화학향”이라며 “천연향이 인체를 수승화강시켜 건강을 지켜준다면 화학향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향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도울뿐 아니라 올바른 향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을 펴냈다”고 덧붙였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향 문화 시초는 ‘삼국유사’에 실린 목욕자 편이란다. 19대 눌지왕 때 중국 양나라서 의복과 함께 향을 보내왔으며, 목욕자는 향을 이용해 공주의 병을 치유했다고 한다. 신라 진평왕 때 김유신이 백제·고구려 등 이웃 국가 침략을 막기 위해 향불을 피워 하늘에 기도하자 광재가 드리웠다는 ‘삼국사기’ 기록도 있다.

이 책에는 각 시대별로 향에 대한 사용 기록들도 언급돼 있다. 신라 헌덕왕(819년)때는 정부 관료가 귀한 수입품인 침향을 앞다퉈 사지품으로 사용하자 진골 계급을 포함해 침



향의 역사와 종류, 사용법 등 설명
“화학향은 각종 질병 유발할 수 있어”
9~10월 전국 향 관련 순회 전시

향 사용을 금한다는 왕명이 떨어진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향문화가 퍼지면서 방향물질은 혼합한 향수로 목욕하거나 침향을 약용으로 썼다. 조선시대에도 남녀 구분없이 향낭을 패용했고 회춘을 목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침향은 특히 값비싸게 거래돼 왕이 직접 챙겼으며 관료에게 상으로 하사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향목을 태우고 그 향기를 감상하는 ‘문향(聞香)’은 한중일 3국이 공유했지만 현재 일본만 그 전통이 남아있다. ‘일본서기’에는 599년 침향이 아와지섬에 표착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헤이안의 귀족은 각자 취향에 따라 비밀스러운 조제법을 갖고 있었다. 향기를 경연하는 ‘훈물 합’은 귀족의 취미였다.

향을 만들어진 재료와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이 붙는다. 향목(香木)은 침향류, 백단 등의 원재료를 잘게 잘라서 향로에 넣어 태운다. 환향(丸香)은 각종 향료나 후박나무 껍질, 가물테나무 껍질을 분말로 반죽한 다음 꿀이나 매실육, 재를 섞어서 환으로 만든 향. 가장 많이 접하는 선향(線香)은 느릅나무나 후박나무의 껍질을 가루로 내 침향, 계피, 정자, 용연향, 용비 등 각종 조향료를 원료로 국수발 뿜듯 만든다.

능혜 스님은 “좋은 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인간의 신체를 수승화강 시켜준다”며 “톨루엔, 벤젠, 자일렌 등 화학냄새나 나쁜 향에 대해선 일반의 관심이 적는데 향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코로도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능혜 스님은 △대구 봉산문화회관(9/4~7) △부산 문화회관(9/27~29) △서울 불일 갤러리(10/1~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10/9~12) △제주 세시제 갤러리(10/16~20) 등의 일정으로 전국 순회 전시를 연다.

김주일 기자 kimj14217@hyunbul.com

근심 붙을 수 없는 8주간 명상 마음 근육 단련 효과적 처방전

8주 나를 비우는 시간

마크 윌리엄스, 대니 펠먼 지음
인화영, 이재식 옮김 | 불광 펴냄 | 1만 6천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보다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곤 한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 이 책 속에 효과적인 해법이 있다. 일중독인 직장 상사 영향으로 어느덧 마리아의 삶은 ‘일’ 중심이 되고 있었다. 직장서 성공해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일 할 시간을 벌기 위해 매주 나가던 성가대 활동도 포기했다. 그다음엔 매달 다니던 북클럽 활동을 그만두었다. 그래도 주어진 일을 다 해내지 못하자 마리아는 아홉 살배기 딸을 방과 후 학교에 맡기고 하루 두 시간을 더 일했다. 그런데 이 선택들로 일 할 시간은 늘었지만 재충전 시간의 부족으로 낮아진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자연히 실적도 제자리를 뒀다. 여기에 딸아이를 방치한다는 죄책감이 마리아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지행해주는 기동이 하나씩 사라지는 꼴이 된다. 그렇게 기동이 하나둘 사라지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건 탈진과 불행뿐이다.

마음은 ‘행위 양식’과 ‘존재 양식’이라는 두 가지 양식으로 움직인다. 행위 양식이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존재 양식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마음의 움직임을 일컫는다.

행위 양식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도시서 길을 찾고, 바쁜 업무 스케줄을 소화한다. 그런데 불행이라는 문제에 행위 양식으로 대응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현재의 불행과 상상 속 행복을 비교하며 그 간격에 집중해 ‘더 행복해야 해’라고 자기를 사정없이 다그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한층 더 가라앉아 침울해지곤 한다.

문제를 곱씹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불러일

불행의 고리 끊는데 큰 목적
‘마음존재양식’ 불행 ‘끝’ 비결

으킨다는 건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불행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지난 시간 시점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빠져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마음의 ‘존재 양식’에 따라야 한다.

과거에 불행을 경험했던 조건과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불행했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고 다시 불행에 빠져들기 쉽다. 이 복기에 마리아의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합리적인 선택이 불행한 결과를 낳았을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삶의 ‘선택 사항’으로 보이는 활동을 우선 포기한다. 그런데 사실 그런 활동은 대개 우리에게 양분을 주는 활동이어서, 그런 활동이 하나 줄 때마다 우리는

김주일 기자

- 1주: 마음의 자동 조종 모드에서 자유로워지기
- 2주: 마인드스캔 명상을 통해 몸과 다시 연결되기
- 3주: 동작을 알아차려 내면에 ‘조기 경보 시스템’ 만들기
- 4주: 생각을 지나가는 ‘소리’처럼 여기기
- 5주: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친구 되기
- 6주: 자기를 너그럽게 대하기
- 7주: 현명한 선택으로 영혼 살찌우기
- 8주: 일상생활 속에 마음챙김 씨앗 뿌리기

禪의 요체인 <선가귀감>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조선불교의 탄생, 선가귀감

김동기 지음 | 그린비 펴냄 | 1만 7천원



이후에도 수많은 유학자들이 불교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불씨잡변》에서 논하는 19가지 조항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이 책이 당대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도전은 새로운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리라는 야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불씨잡변》을 쓴 것이었다. 하지만 불교를 비판하는 정도전의 논지 전개가 모두 씩 흘롱하리라는 할 수 없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불씨잡변》에서 그는 불교의 주요 논리를 단순히 표면적인 차원에서 가져다가 해석하여 이용하는 탓에, 불교 논리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승려들의 부정부패 등 불교의 오래된 폐단에 대한 단편적인 지적들은 이전부터 있어 왔고 이는 분명히 불교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었지만, 유교의 폐쇄적인 정합성으로 불교 교리를 비판하는 논리들은 근거가 없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는 유교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이 강도를 더해 갈수록 불교계에서도 마땅히 새로운 논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폐지되고 승려들의 지위는 천만으로 떨어지는 동안 탄압의 압력에 굴복하여 속세로 돌아가는 승려들도 많았고, 불교의 암흑기를 타개할 만한 유능한 인재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수행에 몰두하며 자신의 길과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뜨겁게 모색했던 서산휴정은 자신의 색깔을

지닌 불교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선가귀감》은 선의 요체, 불교 수행의 핵심, 깨달음의 정수 등으로 불린다. 이는 서산휴정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깨달음이거나 하나뿐인 수행 방법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방대한 불교 경전들의 핵심을 모아서 한 권에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어느 한 가지 수행 방법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든 수행 방법을

시대 극복하기 위한 깨달음의 전략
휴정 “선과 교의 본질은 같다”

아우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선가귀감》은 오늘날까지도 불교 수행 입문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 테다.

뿐만 아니라 서산휴정은 이 책에서 참선 수행의 중요성과 교학 공부의 중요성, 열불 수행의 필요성 등을 모두 아울러 짚어 주며 여러 근거(根拠)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일러 주고 있다.

리라이팅 선가귀감 3부에서는 이처럼 서산휴정이 체계를 마련하며 새로운 조선 불교의 문을 열었던 ‘간화선’(看話禪) 수행을 길에 대해 《선가귀감》의 구절들을 들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알기 쉽게 풀어 준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禪是佛心, 教是佛語)라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불교계에서는 돈오·점수 논쟁과 더불어 선과 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휴정이 보기에 이 둘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서로 다른 방법일 뿐, 결국에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휴정이 선(禪)으로 가는 길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을 꼽자면, 화두를 들어 참구하는 ‘간화선’(看話禪) 수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화두를 들어도 사구(死句)가 아니라 필필 뛰며 살아 있는 활구(活句)를 들어 철저히 의심하는 것이라고 휴정은 강조한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캄캄한 절정의 산산조각이 되도록 깨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क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कukak.com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중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중단 여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범행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흥익범패단 신입생 모집

기초과정 3개월
염불소리(전수경, 반야심경) 동음, 독경, 지도, 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 법, 사찰운영법, 신도관리법, 각종예절법, 불교의 개론, 초발심 자경문

중급과정 3개월
중송, 도량서, 조석예법, 사시불광, 목탁불공, 신중불공, 시더림, 방생, 산신불공, 향수해례, 사성례, 거불, 상용영법(기제사), 봉송, 봉안례

상급과정 6개월
대령, 관육, 신중정,39위, 상단, 지장정, 관음정, 삼보통칭, 시련, 옹호계, 대계, 헌좌계, 행보계, 천도제, 사십구제, 각종의식 고حن소

특수과정 1년
불상점안, 생전예수제, 패불이음, 수록제, 설주이음, 다비식, 매장, 화장, 각종축문, 이상

작업과정 1년
전수배라, 오잡, 사다라니배라, 회의제배라 (나비춤), 도량계, 대계

모집인원 각과정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3년 12월 중
개강일시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개강후에도 수시접수하여 12월까지 마감
제출서류 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교육기간 ① 기초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② 중급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③ 상급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④ 특수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한국불교 흥익범패단에서는 승려후보, 예비승인을 위하여 원하시는 중단 앞선과 대덕큰스님을 은사로 소개하고 사찰, 창건의 지도와 수계 득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강주이신 민지호 스님께 전화 하시거나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010-4466-3575)

장소 : 김해불교문화원 3층범당 / 주소 : 경남 김해시 흥동 7-5번지

한국불교흥익범패단
전화 055)345-0211 / 불교문화원 055)322-0088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